

파견대학	파견기간	소속대학	학 과	학 번	이름
슈지츠대학	2024. 3. 26 ~ 2024. 8. 7	국립군산대학교	음악과	2100***	박**

슈지츠 교환학생에 다녀와서 여러가지 좋은 경험들을 했다. 기숙사가 우리나라와 달라서 신기했다. 한국과 다른 점은 기숙사가 일반 원룸과 같은 형태였다. 여자 인원수가 5명이었는데 나는 혼자 방을 쓰게 되어서 일본에서 거의 자취했다. 그래서 음식도 집에서 요리해서 먹었다. 일본 마트 물가가 저렴해서 식비를 한국보다 아껴서 생활할 수 있었다. 외식은 한국과 비슷했다. 학교 기숙사 위치에서 근처에 마트가 4개 정도 있었는데 전부 걸어서 거의 15분~20분 걸렸다. 6월까지의 걸어서 다녔지만 여름에는 날씨가 너무 덥고 햇빛이 강해서 지하철 타고 역에 있는 쇼핑몰을 자주 이용했었다. 오카야마는 작은 도시라서 지하철이 복잡하지 않아서 다니기 쉬웠다. 학교생활은 매우 즐거웠다. 학교에 버디친구들이 있었다. 그래서 친구를 쉽게 사귄 수 있었다. 친구들이 벚꽃 축제에서 놀았다. 드라마나 만화에서 보던 것처럼 포장마차들이 굉장히 많았고 바비큐 파티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리고 포장마차에는 일본 전통 음식들도 팔고 있었고 한국 음식인 치즈핫도그도 팔고 있어서 신기했다. 나는 타코야끼랑 크레이프 먹었다. 엄청 맛있었고 가격도 괜찮았다. 학교에서 헬스부 동아리도 들어갔다. 헬스부에 들어가면 학교 헬스장을 이용할 수 있었다. 그래서 운동하고 싶어서 같이 유학생활한 언니와 함께 들어갔다. 헬스부에서 부원들이랑 바비큐파티도 했다. 같이 고기도 먹고 사진도 찍고 수다도 떨고 친구들이 한국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다. 화장품이랑 연예인에 관심이 많았고 한국어 공부하는 친구도 있었다. 학교 다니면서 친구 만날 때 한국과 일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나도 일본어를 배울 수 있고 친구도 한국어를 배울 수 있으니까 교류가 잘 되어 도움이 많이 되었다. 일본에서 학교생활하면서 신기한 점이 많았다. 일본은 쉬는시간 없이 1시간 30분 수업을 한다.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생각보가 금방 적응했다. 처음 수업 들었을 때는 일본어가 엄청 빨라서 잘 못알아 들었고 많이 해맸다. 다행히 학교에서 튜터시스템이 있어서 수업이 어려우면 튜터를 신청할 수 있었다. 그래서 2과목은 튜터를 신청해서 도움을 받았다. 시험기간 전에는 튜터랑 같이 공부도 했었다. 학기가 거의 끝날 무렵에는 처음보다 청해 실력이 엄청 늘었다. 그래서 일본에서 가끔 영화관에서 영화도 보기도 했다. 일본은 한국과 다르게 거의 모든 과목이 매 수업 끝날 때 마다 작은 레포트를 제출한다. 제출하지 않으면 출석 인정이 되지 않는다. 처음에는 레포트 쓰는 것도 시간 많이 걸려었는데 쓰다보니까 점점 익숙해졌다. 7월에 JLPT시험이 있었다. 그래서 시간이 남을 때는 JLPT 공부를 했다. JLPT 준비하는데 너무 어렵고 양이 많아서 힘들었다. 처음에 독해문제 푸는데 점수가 좋지 않아서 다른 부분보다 독해를 더 공부했었다. 그리고 단어를 무작정 외우는 느낌보다 많이 눈에 보이게 했다. 문제 방식을 터득해서 문제 풀 때 성취감이 들어서 뿌듯했다. JLPT 준비하고 일본어로 수업을 들으니까 실력이 더 빨리 늘었던 것 같다. 슈지츠 대학 다니면서 학교가 학생들을 많이 신경써주는 모습들이 많이 보여서 너무 좋았다. 선생님들이랑 친구들, 같이 유학하던 언니, 오빠들도 너무 좋았다. 유학 생활하기 잘한 것 같다. 너무 좋은 경험이었다. 유학 가고 싶은 사람이나 망설이는 사람이 있다면 나는 한 번쯤 생활해봤으면 좋겠다, 언어 공부에도 도움이 정말 많이 되고 친구도 사귄 수 있고 그 나라 문화도 경험할 수 있다. 여행과는 전혀 느낌이 다르다. 유학 생활한다면 많은 경험을 할 수 있다. 이상이다.

※ 위 후기는 실제 파견 교환 프로그램을 다녀온 학생의 귀국결과보고서의 내용입니다.